

## 초등학생 비행의 성차분석 : 자기통제이론을 중심으로\*

기 광 도\*\*

###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 청소년 비행에서의 성차를 자기통제이론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 비행 및 범죄현상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자기통제이론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초등학생 자료를 통하여 비행 및 범죄에서의 성차의 존재를 파악하고, 이러한 성차에 대한 자기통제이론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1) 비행에서의 성차가 존재하는지, 2) 그러한 성차는 자기통제이론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지, 3) 자기통제이론은 남성 및 여성 모두의 비행에 적용 가능한지, 4) 가정의 자녀양육을 통하여 자기통제력이 형성되는 과정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하여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방법을 통하여 수집된 것이다. 조사된 1,128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비행에서의 성차를 분석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 비행에서 성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하여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기통제이론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범죄발생의 성차는 성별에 따른 자기통제력의 차이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 자녀양육과정에 차이가 있으며, 남자에 비하여 여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 행동에 대한 감독정도, 처벌의 적절성 등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사회화 및 자녀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성별에 의한 자녀양육의 차이가 자기통제력에서의 차이를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자기통제력에서의 차이가 비행에서의 성차를 유발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자기통제이론은 청소년 비행의 성차를 분석하는 유용한 이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주제어 : 청소년 비행, 성차, 자녀양육, 자기통제력, 자기통제이론

\* 이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제공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이 논문에 대하여 유익한 비평을 해주신 논평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대구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사회학 박사.

## I. 머릿글

성별이나 연령 등의 생물학적 특성과 개인의 사회적 행위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물음은 생물학적 특성에 따른 행위양상의 차이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그러한 차이가 어떠한 원인과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가를 밝히고자 하는 관심이다. 이는 인간의 행위를 다루는 대부분의 학문에서 기본적인 쟁점거리라고 할 수 있다. 범죄학에서도 범죄현상에서의 성차(gender gap)는 많은 관심과 논쟁적인 탐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공식통계자료나 자기보고식 자료 등에 의하면 남성의 범죄발생은 여성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범죄발생에서 남성과 여성간의 명백한 차이는 모든 시대 및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미 하나의 ‘당연한 사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발생에서의 성차에 대하여 범죄학 이론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미국에서 초기의 범죄이론들은 범죄발생의 성차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범죄를 대체로 남성에게 집중적으로 저질러지는 행동으로 파악하고, 여성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한 설명이나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입장에서 범죄현상에서 성차는 사회적 성역할모형, 사회적 기대 및 통제, 범죄기회 등의 차이로 설명되었다. 범죄현상의 성차에 대한 이론적 논쟁은 1970-80년대의 여성주의 범죄이론(feminist criminology)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주의 범죄이론에서는 기존의 범죄이론을 남성중심적 이론으로 보고, 이러한 이론들은 범죄발생의 성차 및 여성범죄를 설명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여성의 사회적 차별권력구조를 고려하는 성-특화이론(gender-specific theory)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Daly and Chesney-Lind, 1988; Chesney-Lind, 1988, 1989; Staffensmeier and Allan, 1996).

이에 대하여 전통적 이론들은 범죄발생에서의 성차를 자신들의 이론적 범죄요인으로 설명하였고, 이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시도하였다(Akers et al., 1979; Smith and Paternoster, 1987). 특히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and Hirschi, 1990)에 의하여 ‘범죄의 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rime)’으로서 자기통제이론(self-control theory)이 제시된 이래, 범죄현상에서의 성차에 대한 논쟁은 더욱 활발

하게 전개되었다. 일반이론으로서의 자기통제이론은 어떤 시대 및 사회, 환경 및 상황, 그리고 성별 및 연령집단 등에서 가장 주요한 범죄의 원인은 개인의 자기통제력이며, 이러한 자기통제력으로 모든 유형의 비행 및 범죄현상을 설명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럼으로 범죄발생에서의 성차 및 여성범죄에 대해서도 자기통제력을 통하여 설명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범죄에서의 성차에 대한 적용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분석결과는 자기통제이론을 지지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 청소년 비행에서의 성차를 자기통제이론으로 분석하고자 한다.<sup>1)</sup> 먼저 청소년 비행 및 범죄현상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자기통제이론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초등학생 자료를 통하여 비행 및 범죄에서의 성차의 존재를 파악하고, 이러한 성차에 대한 자기통제이론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II. 성차와 자기통제이론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비행 및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기통제력(self-control)을 강조하고, 이러한 자기통제력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환경 및 자녀양육을 제시하였다(Gottfredson and Hirschi, 1990). 그들의 주장에 의하며, 개인의 자기통제력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은 가정이며, 개인의 자기통제력은 가정에서 자녀양육을 통하여 7-8세 정도의 어린시기에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자녀양육과정에서 부모와의 애착(attachment),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monitoring), 자녀의 잘못에 대한 인지(recognition),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적절한 처벌(punishment) 등이 자녀의 자기통제력이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즉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애정과 지원을 바탕으로 자녀의 행위를 살펴보고, 사회적

1) 일반적으로 10-13세의 초등학생은 아동,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개념을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광의로 사용하였다. 청소년 기본법(제3조 1항)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저지르는지 파악하고, 그러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부과한다면 자녀는 높은 수준의 자기통제력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녀양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개인의 자기통제력은 범죄 및 유사행위의 가장 중요하고 밀접한 원인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장기적인 이해를 고려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낮은 자기통제력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1) 즉각적인 욕구충족, (2) 단순하고 손쉬운 욕구충족, (3) 흥분되고 위협하고 짜릿한 행동선호, (4) 장기적인 이익에 대한 무관심과 노력부족, (5) 지식습득을 위한 기술과 계획부족, (6) 자기중심적인 경향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충동적 욕구를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화를 잘 내거나 흥분하기 쉬우며, 위험스러운 행위를 좋아하고, 단순하고 쉬운 일을 즐겨하며, 정신적 사고보다는 육체적인 활동을 좋아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자신의 즉각적인 만족이나 욕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기만이나 폭력 등을 사용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들은 즉각적인 욕구를 억제하며, 비교적 화를 잘 참아내는 경향이 있으며, 위험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약하고, 다소 복잡하고 진취적인 일을 추구하고, 정신적인 활동을 선호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배려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라고 한다. 이러한 개인들은 스스로 욕구를 억제하고, 타인의 의도와 기대를 이해하게 되며, 즉각적인 욕구를 추구하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욕구, 또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행위를 추구하게 되고, 기만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Hirschi, 1983; Gottfredson and Hirschi, 1990).

이러한 자기통제력에 대하여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안정성(stability), 다능성(versatility) 등을 제시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는 일반성(generality)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통제이론의 일반성은 개인의 자기통제력은 모든 시간과 공간적, 그리고 모든 유형의 집단의 범죄에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기통제력이 범죄에 미치는 효과는 시간과 공간적, 성별이나 연령 등의 집단에게도 동일한 양상, 즉 일정성(invariance)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시간 및 공간, 그리고 성

별이나 연령 등의 구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통제력은 범죄발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통제이론의 일반성에 대한 주장은 범죄현상에서의 성차에 대한 논쟁을 유발시켰다.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성별은 범죄현상에 중요한 관련요인이며, 남자가 여자보다 범죄를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범죄발생의 성차는 다양한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의 이론들은 이러한 성차를 범죄기회나 감독 중의 통제요인 등에서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범죄가 낮은 것은 범죄를 저지를 기회가 부족하거나, 가정이나 다른 사회기관의 통제가 강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이러한 성차의 설명에서 기회 및 통제요인이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자기통제력을 범죄발생의 성차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으로 제안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성별에 따른 자기통제력의 실질적인 차이”(Gottfredson and Hirschi, 1990: 147)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가 범죄에서의 성차를 초래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즉 범죄발생의 성차는 성별에 따른 자기통제력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또한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소년들의 범죄현상과 관련된 요인들은 소녀에게도 같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자기통제력은 남성이나 여성의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따라서 자기통제이론은 남성 및 여성 모두의 범죄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통제이론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Pratt and Cullen, 2000; Hay, 2001), 특히 최근에는 성차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도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에서는 자기통제이론에서 제시된 주장, 즉 자기통제력은 남자와 여자의 모두에게서 중요한 범죄발생의 원인이라는 점에서는 대체적으로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Keane, Maxim, and Teevan, 1993; Longshore et al, 1996; Higgins and Tewksbury, 2006; Chapple and Johnson, 2007; Shekarkhar and Gibson, 2011). 또한 여자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남자청소년의 자기통제력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주장도 경험적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Keane et al., 1993; Blakwell and Piquero, 2004; Gibbs, Giever, and Martin, 1998; Tittle et al., 2003; Gibson et al., 2010). 이러한

연구들은 성별에 따른 자기통제력의 차이를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의 차이, 특히 감시와 같은 직접적 통제에서의 차이로 분석하였다. 여자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감시 및 통제 등이 여자 자녀의 자기통제력을 강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자기통제력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및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몇몇의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을 통제할 경우에는 성별요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지만(Burton et al., 1998; LaGrange and Silverman, 1999; Tittle et al., 2003), 다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성별요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계속 유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Arneklev et al., 1993; Grasmick et al., 1993; Piquero and Tibbetts, 1996; LaGrange and Silverman, 1999). 이러한 결과는 자기통제이론이 범죄발생의 성차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논쟁거리를 제시한다. 또한 자기통제력을 구성하는 6가지 차원들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도 성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LaGrange and Silverman, 1999). 자기통제력을 구성하는 요인 중에서 위험추구는 여성의 비행에 중요한 요인이지만, 충동성은 남성의 범죄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기통제력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인들과 범죄유형간의 관계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Ⅲ. 연구설계

#### 1. 분석모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갓프레드슨과 허쉬(1990)가 제시한 일반이론으로서 자기통제이론은 모든 시간과 공간, 모든 환경과 상황, 그리고 모든 집단들의 범죄현상을 자기통제력으로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일반성을 강조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집단에 속하든 자기통제력은 개인의 범죄발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범죄를 더 저지를 것이라고 한다. 이러

한 측면에서 자기통제이론은 범죄발생에서의 성차와 남성 및 여성의 자기통제력 및 범죄행위 등을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기통제이론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성별에 따른 범죄발생에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러한 범죄발생의 성차는 자기통제력의 차이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자기통제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자녀양육의 산물(the production of child rearing)로 보고 있으며, 개인의 자기통제력의 차이는 부모의 자녀양육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기통제이론에 의하면, 범죄발생의 성차는 성별에 따라 자기통제력 자체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남성에 비하여 여자의 자기통제력이 높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성별에 따라 자녀양육이 다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남성에 비하여 여성에게 보호 및 감독 등이 적절하고 엄격하게 됨으로서 여성의 자기통제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범죄발생의 성차를 자기통제이론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도 비행이나 범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성별을 주요 범죄관련요인으로 고려하였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성별은 통제요인으로만 분석되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여성의 비행 및 범죄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김준오·김은경, 1995; 이현화·전영실, 2005; 전영실, 2004). 최근에 범죄발생에 대한 남녀 성차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분석들이 시도되었으며(민수홍, 2002; 전영실, 2003; 백혜정, 2009; 기광도, 2010), 특히 자기통제이론에 근거한 청소년 비행의 성차에 대한 연구들이 시도되기도 하였지만 아직은 그 수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민수홍, 2002; 백혜정, 2009).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 비행을 통하여 일반이론으로서의 자기통제이론의 성차분석에 대한 적절성 및 여성범죄에 대한 설명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자기통제이론에서 제시된 범죄관련요인들이 성별에 상관없이 남녀청소년 모두에게 같은 영향을 미치는 지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자기통제이론의 성차분석에 대한 적절성 및 성별에 따른 범죄에 대한 설명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1) 청소년 비행에서의 성차가 존재하는지, 2) 그러한 성차는 일반이론이라고 하는 자기통제이론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지, 3) 자기통제이론은 남성 및 여성 모두의 비행에 적용 가능한지, 4) 가정의 자녀양육을

통하여 자기통제력이 형성되는 과정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청소년의 성별 및 연령, 그리고 자기통제이론에서 제시된 자녀양육요인 및 자기통제력 등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정의 자녀양육방식은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 그리고 자녀의 잘못에 대한 처벌의 적정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자기통제력은 그라스미크와 그의 동료들(Grasmick et al, 1993)에 의하여 척도화된 것을 중심으로 충동성, 단순한 작업, 위험성 추구, 신체적 활동, 자기중심성, 감정적 흥분 등을 통하여 파악하였으며, 청소년의 비행의 경우에도 경미한 비행과 심각한 비행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하여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방법을 통하여 수집된 것이다. 조사대상을 표집하기 위하여 먼저 서울시 25개의 자치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상/중상/중/중하/하의 5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상/중/하의 각각 5개의 구역에서 1개의 학교를 선정하였다. 각각의 학교에서 4학년 1개 반, 5학년 1개 반, 6학년 1개 반을 선정하고 그 반의 모든 학생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서울시의 15개 구에서 15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였다. 조사된 1,128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자기보고식 설문지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인,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및 방식, 학교요인, 친구요인,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 그리고 비행경험 및 피해경험 등에 대한 문항을 포함시켰다. 조사는 2009년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이루어졌다.<sup>2)</sup>

청소년 비행에서의 성차를 분석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신뢰도분석은 척도를 구성하기 위한 예비분석으로 활용되었으며,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은 성별에 따른 변수간의 전반적인 관계양상 및 직·간접적인 효과를 분석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에서는 청소년의 성별 및 연령은 통제변수

2) 구체적인 자료수집과정에 대해서는 전영실·기광도(2009)를 참조하기 바람.

로 고려하였다.

### 3. 변수의 측정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청소년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였고, 연령을 태어난 이후의 기간으로 파악하였다. 가정의 자녀양육방식에 속하는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의 경우에는 ‘나는 부모님처럼 되고 싶다’, ‘나는 부모님과 같이 시간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부모님과 매우 가깝다고 느낀다’의 5점 척도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 경우, ‘내가 집밖에 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집밖에 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있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집밖에 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신다’의 5점 척도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자녀의 잘못에 대한 처벌의 적절성은 ‘내가 잘못된 일과 관계없이 벌을 주시는 때가 있다’,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부모님 기분에 따라 벌주시는 것이 달라진다’의 5점 척도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의 경우, ‘나는 당장 재미있는 것이 있을 때 일단 하고 보는 편이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하면 쉽게 그만두는 편이다’, ‘나는 모험적이고 짜릿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앉아 쉬거나 책을 보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더라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편이다’, ‘나는 화가 나면 물건을 가리지 못하는 편이다’의 5점 척도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은 지난 1년 동안의 지위비행 및 범죄행위를 저지른 정도로 파악하였다. 청소년의 경미한 비행은 ‘담배피우기’, ‘술 마시기’, ‘시험에서 컨닝하기’, ‘무단으로 결석하기’, ‘가출행위’, ‘음란동영상 보기’, ‘악성댓글달기’, ‘불법다운로드 받기’, ‘거리에서 침을 뱉거나 쓰레기 버리기’,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하기’, ‘무단횡단이나 교통질서 위반하기’로 11개 행위로 파악하였으며, 심각한 비행은 ‘일부러 남의 물건 망가트리기’, ‘일부러 학교물건 부수기’, ‘일부러 남의 집이나 물건(차)에 흠내기’, ‘다른 친구를 괴롭히거나 왕따시키기’, ‘이성 친구를 성적으로 괴롭히기’, ‘다른 친구와의 사소한 몸싸움’, ‘다른 친구를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하

기, ‘집안의 물건이나 돈 훔치기’,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 훔치기’, ‘다른 사람을 위협하여 물건이나 돈 빼기’ 등의 행동으로 파악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변수의 일반적 특성

자기통제이론을 통하여 청소년 비행의 성차분석하기 위한 조사된 자료의 일반적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사대상자 1,128명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자 및 무응답 등을 배제하여 911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의 경우에는 분석된 911명 중에서 남자 463명(50.8%), 여자 448명(49.2%)으로 두 분포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세는 270명(29.6%), 11세 304명(33.4%), 12세 337명(37.0%)로 나타났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에 대한 척도는 최저값이 3, 최고값이 15이고, 평균이 11.86, 표준편차가 2.81이며,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크론바하(Cronbach)의  $\alpha$  값은 .76로 나타났다. 이러한 척도의 값이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정도가 높은 것을 뜻한다.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에 대한 척도는 최저값이 3, 최고값이 15이고, 평균이 11.28, 표준편차가 3.17이며, 크론바하의  $\alpha$  값은 .87로 나타났다. 이러한 척도의 값이 높을수록,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감독정도가 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녀의 잘못에 대한 처벌의 적절성에 대한 척도는 최저값이 2, 최고값이 10이고, 평균이 8.56, 표준편차가 1.74이며, 크론바하의  $\alpha$  값은 .5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척도의 값이 높을수록,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부모의 처벌의 적절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녀의 자기통제력에 대한 척도는 최저값이 6, 최고값이 30이고, 평균이 19.94, 표준편차가 4.04이며, 척도의 신뢰성을 분석한 크론바하의  $\alpha$  값은 .61로 나타났고, 이러한 척도의 값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기통제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종속변수에 속하는 청소년의 경미한 비행에 대한 척도는 최소값이 0, 최고

값은 26, 평균은 2.77, 표준편차는 4.01로 나타났다. 심각한 비행은 최소값이 0, 최고값은 24, 평균은 1.48, 표준편차는 2.76이며, 이러한 척도들은 값이 높을수록 비행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1〉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특성(N=911)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alpha$ 값
성별 <sup>1)</sup>	0	1			
연령	10	12	11.07	0.81	
애착	3	15	11.86	2.81	.76
감독	3	15	11.28	3.17	.87
처벌적절성	2	10	8.56	1.74	.55
자기통제력	6	30	19.94	4.04	.61
경미한 비행	0	26	2.77	4.01	
심각한 비행	0	24	1.48	2.76	

1) 성별, 0: 남자, 1: 여자

## 2. 청소년 비행에 대한 회귀분석

성별 및 연령, 가정의 자녀양육방식 및 자녀의 자기통제력, 그리고 자녀의 비행간의 상관관계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의 성별은 남자청소년을 0, 여자청소년을 1로 하는 모조변인(dummy variable)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따라서 성별에 대한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결과의 수치는 남자청소년을 기준으로 여자청소년의 상대적 크기를 의미한다.

청소년의 성별의 경우, 가정의 자녀양육방식, 자기통제력, 그리고 비행간의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부모와 자녀와의 애착,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 그리고 자녀의 잘못에 대한 처벌의 적절성과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남자청소년에 비하여 여자청소년의 부모와의 애착,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정도 및 처벌의 적절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에서 자녀 양육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 청소년

년의 자기통제력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에 비하여 자기통제력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과 각각의 청소년 비행간에는 부(-)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자청소년에 비하여 여자청소년의 비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가정의 자녀양육이 다르며, 자기통제력 및 청소년 비행에서 차이가 존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연령의 경우, 가정의 자녀양육방식 중에서 부모와의 애착과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령은 감독 및 처벌적절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자기통제력간에는 부(-)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기통제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연령과 청소년 비행간에는 정(+ )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비행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의 자녀양육요인과 자녀의 자기통제력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부모와 자녀와의 애착, 감독 및 처벌의 적정성 서로 정(+ )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자녀양육간에서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 및 처벌의 적절성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가정의 자녀양육방식은 자녀의 자기통제력과 정(+ )의 관계로 나타났다. 즉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이 높을수록,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 및 자녀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 적절할수록 자녀의 자기통제력은 높다는 것이다. 이는 가정의 자녀양육방식이 적절할수록 자녀의 자기통제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의 자녀양육방식은 자녀의 비행간에는 비교적 강한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자녀양육이 적절할수록 자녀의 비행정도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녀의 자기통제력과 비행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기통제력은 각각의 비행유형과 모두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비행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의 경미한 비행과 심각한 비행간의 관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심각한 비행도 많이 저지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관관계분석에서는 청소년의 성별 및 연령, 그리고 가정의 자녀양육방식, 자기통제력 등은 청소년 비행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및 연령이 높을수록 가정에서의 애착 및 통제 등이 약하며, 자기통제력도 낮으며, 비행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자녀양육방식 및 자녀의 자기통제력 등도 각각의 청소년 비행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요인은 가정의 자녀양육방식 및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그리고 청소년 비행 모두에서 차이를 유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청소년 비행에 대한 상관계수분석(N=911)

	성별	연령	애착	감독	처벌적절성	자기통제력	지위비행	심각한 비행
성별	1.00							
연령	.01	1.00						
애착	.12***	-.17***	1.00					
감독	.27***	-.03	.50***	1.00				
처벌적절성	.18***	-.01	.20***	.18***	1.00			
자기통제력	.14***	-.11***	.13***	.17***	.15***	1.00		
경미한 비행	-.15***	.38***	-.24***	-.23***	-.14***	-.25***	1.00	
심각한 비행	-.21***	.12***	-.16***	-.22***	-.15***	-.23***	.61***	1.00

1) 성별, 0: 남자, 1: 여자

2) \*:  $p < 0.05$ , \*\*:  $p < 0.01$ , \*\*\*:  $p < 0.001$

다음은 청소년의 성별 및 연령, 그리고 가정의 자녀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 3>은 청소년의 성별 및 연령, 그리고 가정의 자녀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비행에 미치는 작간접적인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제시된 값은 보통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method)으로 구한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coefficient)이다. 이러한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통하여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대적 크기를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러한 평가는 독립변수 간 상호독립적이라는 가정에서만 유용하다.

먼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의 경우, <모형 1>은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이 자기통

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성별은 자기통제력에 정(+)<sup>1</sup>의 영향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은 부(-)<sup>2</su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하여 자기통제력이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2>는 성별 및 연령, 그리고 가정의 자녀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성별은 자기통제력에 정(+)<sup>3</sup>의 영향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은 부(-)<sup>4</su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이후에는 가정의 자녀양육방식 중에서는 감독과 처벌적절성은 정(+)<sup>5</su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가정에서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과 잘못에 대한 처벌이 적절할수록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은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는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자기통제력에 대한 설명력은 6%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의 경미한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모형 3>은 청소년의 성별 및 연령의 영향을 분석한 것인데, 성별은 경미한 비행에 부(-)<sup>6</sup>의 영향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은 정(+)<sup>7</su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경미한 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17%로 나타났다. <모형 4>에서는 청소년의 성별 및 연령, 그리고 자녀양육방식 중에서 애착, 감독, 처벌적절성은 경미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별 및 연령을 통제한 이후에도, 가정의 자녀양육은 자녀의 경미한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22%로 나타났다. <모형 5>에서는 청소년의 성별 및 연령, 가정의 자녀양육 중에서 애착 및 감독, 자기통제력이 경미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하여 경미한 비행이 낮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비행수준은 높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과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비행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형에 의한 경미한 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24%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의 심각한 비행의 경우, <모형 6>에서는 앞의 분석과 유사하게 성별은 심각한 비행에 부(-)<sup>8</sup>의 영향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은 정(+)<sup>9</sup>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심각한 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6%로 나타났다. <모형 7>의 분석에서는 연령 및 성별의 영향과 더불어 가정의 자녀양육방식 중에서는 감독 및 처벌의 적절성이 심각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별 및 연령을 통제한 이후에도, 가정의 자녀양육 중에서 감독 및 처벌적 절성은 자녀의 심각한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심각한 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9%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형 8>에서는 연령 및 성별의 영향과 더불어 가정의 자녀양육방식 중에서는 감독 및 처벌의 적절성, 그리고 자기통제력은 심각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하여 심각한 비행이 낮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심각한 비행수준은 높고, 가정에서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수준과 처벌의 적절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심각한 비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형에 의한 심각한 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12%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귀분석결과를 통하여 자기통제이론에서 제시된 가정의 자녀양육방식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의 형성시키고, 이러한 자기통제력은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정의 자녀양육방식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비행심각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도 분석되었다. 가정에서의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은 청소년의 모든 비행을 통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애착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비행에 영향을 미치고, 처벌은 심각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가정의 자녀양육을 통하여 형성된 자기통제력은 각각의 비행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기통제이론은 심각한 비행보다는 경미한 비행에 대하여 더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자기통제이론에서 제시된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성별은 그 영향력이 감소되기는 하여도 여전히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범죄발생의 성차에 대한 자기통제이론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통제이론에서 제시된 가정에서의 자녀양육 및 자기통제력은 성차를 설명하는 일반이론적 성격을 지니지만, 그렇다고 범죄발생의 성차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기통제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범죄발생의 성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3〉 청소년 비행에 대한 회귀분석

	자기통제력		경미한 비행			심각한 비행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성별	.14***	.08*	-.16***	-.10**	-.08**	-.21***	-.15***	-.13***
연령	-.11***	-.10**	.39***	.37***	.35***	.12***	-.11***	.09**
애착		.01		-.09*	-.08*		-.03	-.03
감독		.12***		-.14***	-.12**		-.14***	-.12***
처벌적절성		.11***		-.08*	-.06		-.10*	-.08*
자기통제력					-.16***			-.16***
R2	.03	.06	.17	.22	.24	.06	.09	.12
F 비	13.99***	11.74***	95.86***	50.88***	48.70***	20.96***	18.52***	20.19***
사례수	911	911	911	911	911	911	911	911

1) 성별, 0: 남자, 1: 여자

2) \*: p < 0.05, \*\*: p < 0.01, \*\*\*: p < 0.001

### 3. 성별에 따른 청소년 비행분석

다음은 가정의 자녀양육방식, 자기통제력, 그리고 비행간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자기통제이론으로 남성 및 여성의 비행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표 4>는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연령, 가정의 자녀양육방식,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비행간의 상관관계분석을 보여준다. <표 4>의 대각선의 왼쪽 아래 영역이 남자청소년의 상관계수이며, 오른쪽 위의 영역이 여자청소년의 상관계수이다. 분석된 남자청소년은 463명이며, 여자청소년은 448명이다.

먼저 성별에 따른 가정의 자녀양육방식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감독만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약한 수준의 정(+)의 관계로 나타났으나,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애착, 감독, 그리고 처벌적절성 모두 자기통제력과 강한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가정의 자녀양육방

식과 청소년의 비행간의 관계에서도 남자청소년에 비하여 여성청소년이 상대적으로 강한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통제력과 비행간의 관계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성별에 따른 상관관계분석결과

	연령	애착	감독	처벌적절성	자기통제력	경미한 비행	심각한 비행
연령		-.23***	-.06	.01	-.14***	.40***	.16***
애착	-.12*		.48***	.19***	.23***	-.32***	-.20***
감독	-.01	.50***		.17***	.21***	-.26***	-.16**
처벌적절성	-.04	.18**	.11**		.19***	-.15***	-.14**
자기통제력	-.08	.02	.10*	.08		-.25***	-.20***
경미한비행	.39***	-.17***	-.16***	-.09*	-.21***		.58***
심각한 비행	.11*	-.11*	-.18***	-.12*	-.22***	.62***	

1) \*:  $p < 0.05$ , \*\*:  $p < 0.01$ , \*\*\*:  $p < 0.001$

<표 5>는 남자 및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회귀분석결과이다. 먼저 남자청소년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연령은 자기통제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자녀양육방식 중에서는 감독수준만이 자기통제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가정에서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이 적절할수록 남자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자기통제력에 대한 설명력은 3%로 나타났다. 남자청소년의 경미한 비행의 경우, 연령은 정(+)의 영향, 가정의 자녀양육방식 중에서는 감독수준 및 자기통제력은 경미한 비행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비행수준은 높고, 가정에서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경미한 비행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형에 의한 경미한 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21%로 나타났다. 남자청소년의 심각한 비행의 경우, 가정에서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심각한 비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형에 의한 심각한 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9%로 나타났다. 자기통제이론은 심각한 비행보다

는 경미한 비행에 대한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여자청소년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연령은 자기통제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의 자녀양육방식 중에서는 애착, 감독, 처벌적정성이 자기통제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적절할수록 여자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자기통제력에 대한 설명력은 10%로 남자청소년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자청소년의 경미한 비행의 경우, 연령은 정(+)의 영향, 가정의 자녀양육방식 중에서는 애착 및 감독수준, 그리고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경미한 비행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비행수준은 높고, 가정에서 자녀와의 애착 및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경미한 비행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형에 의한 경미한 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26%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의 심각한 비행의 경우, 연령은 정(+)의 영향, 가정의 자녀양육방식 중에서는 애착수준, 그리고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심각한 비행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가정에서 자녀와의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여자청소년의 심각한 비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형에 의한 심각한 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남자 및 여자청소년으로 각각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자기통제이론은 대체적으로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통제력의 형성과정에 대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남자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가정의 자녀양육방식인 부모와의 애착, 감독이나 처벌 등에 의한 영향을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위의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비하여 여자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애착, 감독 등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통제력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기통제이론에 대한 분석에서는 남자청소년에 비하여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더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5〉 성별에 따른 회귀분석결과

	남자청소년			여자청소년		
	자기통제력	경미한 비행	심각한 비행	자기통제력	경미한 비행	심각한 비행
연령	-.09*	.37***	.09	-.10*	.34***	.11*
애착	-.07	-.06	-.01	.12**	-.13**	-.09*
감독	.13*	-.10*	-.14**	.12*	-.13*	-.07
처벌	-.07	-.04	-.08	.15***	-.08	-.08
자기통제력		-.18***	-.19***		-.14***	-.13**
R2	.03	.21	.09	.10	.26	.09
F 비	2.95*	25.02***	8.56***	11.58***	31.11***	8.27***
사례수	463	463	463	448	448	448

1) \*:  $p < 0.05$ , \*\*:  $p < 0.01$ , \*\*\*:  $p < 0.001$

## V. 맺음글

지금까지 ‘일반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통제이론을 통하여 청소년 비행의 성차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자기통제이론의 성차에 대한 분석가능성 및 성별에 따른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비행에서 성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하여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 비행에서의 차이는 자기통제이론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자기통제력의 차이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자기통제력의 차이는 가정에서의 부모의 자녀양육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자녀양육과정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남자청소년에 비하여 여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 행동에 대한 감독정도, 처벌의 적절성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른 차별적 사회화 및 자녀양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정에서 남자보다 여자청소년에 대하여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성별에 의한 자녀양육의 차이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형성하였으며, 결국 비행에서의 성차를 유발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자기통제이론은 청소년 비행의 성차를 분석하는 유용한 이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통제이론의 요인들을 통계학적으로 통제한 후에는 청소년 비행에 대한 성별요인의 직접적인 영향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비행에 대한 성별효과는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기통제이론이 일반이론으로서 범죄발생의 성차를 분석할 수 있지만, 충분하게 설명되지는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별요인은 청소년 비행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비행의 분석에서 다른 범죄관련요인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경우에 성별요인의 영향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기통제이론의 성별에 따른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자기통제력이 비행에 미치는 효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통제력의 형성과정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기통제이론은 남자청소년에 비하여 여자청소년의 자기통제력 형성과정에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통제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 적용될 수 있다는 일반성을 지지하기 보다는 성별에 따라 다른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일반적 효과(*general effect*)보다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성-특화 효과(*gender-specific effect*)를 시사한다. 그러나 칸프레드슨과 허쉬(1990)는 자기통제력의 형성원인으로 애착 등의 자녀양육 이외의 부모의 범죄성, 가정의 규모, 한부모 가정, 어머니의 취업 등의 요인들은 제시한 바 있다. 앞으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청소년 비행의 성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에서의 성차현상을 자기통제이론으로 설명가능한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위의 분석결과와 같이 자기통제이론은 일반이론으로서 범죄발생의 성차를 분석하는 적절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한 일반화하는데 다소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서울 지역의 10-12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 및 다른 연령대의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통제이론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우리 사회에 적합하고 표준화된 척도의 구성이 필요하다. 특히 이론의 중심이 되는 자녀양육 및 자기통제력에 대한 척도구성을 위하여 관련 연구자들의 공동의 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 연구는 범죄발생의 성차에 대한 자기통제이론적 주장을 우리 사회의 자료를 가지고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 것이다. 아직도 이러한 주제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 비행의 성차에 대한 자기통제이론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좀 더 많은 경험적 연구들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논의, 그리고 정밀한 분석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 참고문헌

- 기광도. 2010. “청소년 비행의 성차분석: 일반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22(2): 145-166.
- 김준오·김은경. 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민수홍. 2002. “여자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49: 35-66.
- 백혜정. 2009. “성별에 따른 청소년들의 가정환경과 비행 경험 관계에서의 부모의 지지와 자기통제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4): 37-56.
- 이현희·전영실. 2005. “여성범죄 추이 및 관련요인 분석.” 『교정연구』 26(3): 57-80.
- 전영실. 2003. “성, 사회유대, 비행에 대한 연구: 가족적 요인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4((1): 313-347.
- 전영실. 2004. “여성 폭력범죄의 특성 및 대책.” 『교정연구』 22(3): 141-168.
- 전영실·기광도. 2009. 『저연령소년의 비행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Akers, R., M. Krohn, L. Lanza-Kaduce, M. Radosevich. 1979. "Social Learning and Deviant Behavior: A Specific test a General Theory. American sociology Review 44: 298-310.
- Arneklev, B., H. Grasmick, C. Tittle, and R. Bursik. 1993. "Self-Control Theory and Imprudent Behavior."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9: 225-247.
- Blackwell, B.S., and A.R. Piquero. 2005.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gender, power control, and Crim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3:1-17.
- Burton, V.S. F.T. Cullen, T.D. Evans, L.F. Alarid, and R.G. Dunaway. 1998. "Gender, Self-Control, and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 123-147.
- Carpi, A., T.E. Moffitt, P.A. Silva, M. Stouthamer-Loeber, R.F. Krueger, and P. S. Schmutte., 1994. "Are some People Crime-Prone? Replications of the Personality-Crime Relationship Across Countries. Genders, Race, and Methods." Criminology 32:163-195.

- Chapple, C.L., and K.A. Jhonson. 2007. "Gender Differences in Impulsivity."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5: 221-234.
- Chesney-Lind, M. 1989. "Girls' Crime and Women's Place: Toward a Feminist Model of Female Delinquency." *Crime & Delinquency* 35: 5-39.
- Daly, K., and M. Chesney-Lind. 1988. "Feminism and Criminology." *Justice Quarterly* 5:497-538.
- Evans, T.D., F.T. Cullen, V.S. Burton, Jr., and R.G. Dunaway, and M.L. Benson. 1997. "The Social Consequences of Self-Control: Test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Criminology* 35: 475-504.
- Gibbs, J.J., D. Giever, and J. S. Martin. 1998. "Parental Management and Self-Control: an Empirical Test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 40-70.
- Gibson, C.L., J.T. ward, J.P. Wright, K.M. Beaver, and M. Delisi. 2010. "Where does Gender fit in the Measurement of Self\_control?"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7: 883-903.
- Gottfredson, M., and T. Hirschi.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smick, H.G., C.R. Tittle, R.J. Bursik, Jr., B.J. Arneklev.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5-29.
- Hay, C. 2001. "Parenting, Self-control, and Delinquency: A Test of Self-control Theory." *Criminology* 39: 707-736.
- Hayslett-MacCall, K.L., and T.J. Bernard. 2002. "Attachment, Masculinity, and Self-Control: A Theory of Male Rates." *Theoretical Criminology* 6: 5-33.
- Higgins, G.E., and R. Tewksbury. 2006. "Sex and Self-control Theory: The Measures and Causal Model may be Different." *Youth & society* 37: 479-503.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eane, Carl, Paul S. Maxim, and J. J. Teevan. (1993). "Drinking and Driving, Self-Control, and Gender: Testing a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3-46.
- Longshore, D., S. Turner, and J.A. Stein. 1996. "Self\_control in a Criminal Sample: An Examination of Validity." *Criminology* 34: 209-228.
- LaGrange, T.C., and R.A. Silverman. 1999. "Low Self-Control and Opportunity: Test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as an Explanation for Gender Differences in Delinquency." *Criminology* 37: 41-72.
- Pratt, T.C., and F.T. Cullen, 2000. "The Empirical Statu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A Meta-Analysis." *Criminology* 38: 931-964.
- Shekarkhar, Z., and C.L. Gibson. 2011. "Gender, Self-Control, and Offending Behaviors Among Latino Youth."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7(1): 63-80.
- Smith, D., and R. Paternoster. 1987. "The Gender Gap in Theories of Deviance: Issue and Evidence." *Criminology* 24: 140-172.
- Steffensmeier, D., and E. Allan. 1996. "Gender and Crime: Toward a Gendered theory of Female Offend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459-487.
- Tittle, C.R., D. A. Ward, and H. G. Grasmick. 2003. "Gender, Age, and Crime/Deviance: A Challenge to Self-control Theor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0: 426-453.

## An Empirical Study on Gender Gap : With the Self-Control Theory

Ki, Kwang-Do\*

The gender gap in deviance and crime is one of the debated issue in criminology. According to 'general theories' such as self-control theory, a gender-gap of delinquency and crime can explain through variation of self-control. But several scholars has criticize the issue that general theories are not able to account for female crime, and suggest the need for gender or sex-specific theo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ability of self-control theory to account for the 'gender gap' in delinquency and crime, the generality of self-control to explain for variations in delinquent behavior for both males and females. The data that we have analysed here were obtained from a self-reported survey conducted in Seoul in July, 2009. The sample consists of a total of 911 elementary school students aged between 10 and 12.

In this study, the results indicate that gender is significantly related with juvenile's delinquency, thus these data reveals the presence of a gender gap with males being more delinquent. And we found that self-contro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delinquency, but gender effect on delinquency remain significant. Also self-control is related significantly with both male and female delinquency. This results suggest that Gottfredson and Hirschi's self-control theory is a general theory with a ability to account the gender-gap and a generality to crime across the gender.

---

\*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Daegu University. Ph. D. in Sociology.

And we wish this study t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 and expla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gap in juvenile delinquency in our society. From our study, it is implied that future research should attempt to develop a more considerable model and the measures on the major concepts and analysis methods on these issue

❖ Key Words : Delinquency, Gender Gap, Child Rearing, Self-control, Self-Control Theory.